

## 중동발 유가 폭등... 직격탄 맞은 화물 운송업자들 '한숨' "40여년 차 몰았는데 가장 최악 상황"

10일 기준 경유 1당 1974원대... 일주일 새 300원 ↑ "주유할때마다 부담 커져... 화주·업체 무관심 일관" 택배 업계도 노심초사... "기사들만 손해보는 상황"

"44년 동안 화물차를 몰았는데 이런 유가 폭등은 처음이에요. 기름 값은 오르는데 운송비는 그대로니 답답합니다."

10일 오전 제주시 건입동의 제주항 인근에서 만난 화물 운송노동자 김종만(70)씨는 이같이 하소연했다.

이날 사태가 촉발한 유가 급등으로 화물 운송노동자와 택배노동자 등 운송업계 종사자들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기름값이 나날이 오르고 있지만 화물운송비는 여전히 '1600원'을 기준으로 책정돼 노동자들의 손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누리집 '오피넷'에 따르면 제주지역 평균 경유 가격은 1당 1974.78원으로, 일주일 전(1667원)보다 약 18.5% 올랐다. 사태 직전인 2월 27일(1635원)과 비교해서는 20%가량 상승했다.

김씨는 5t 카고 트럭을 몰며 화물을 운반한다. 제주시내 운임은 건당 12만원, 서귀포 등 시외운임은 15만원을 받는다. 김씨는 "한번 주유하면 35만원이었는데 이제는 47-50만원 정도로 올랐다"며 "평생 생계로 삼아온 직업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화물노동자 김모씨는 7.5t 왕바디 트럭을 운행한다. 기름을 모두 채워 넣으면 약 400ℓ다. 그는 "원래는 가득 넣으면 60만원이었지만 이제 76-80만원이다. 한 달이면 160-200만원이 기름값으로 더 나가게 됐다"며 "화주나 운송업체에서는 올라간 유류비에 대한 언급도 없고, 당연히 보전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다고 소문난 주유소에는 화물차들이 줄을 선다. 삼다수를 운송하는 화물노동자 양모씨는 "기사들이 쓴 주유소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아침마다 긴 줄이 생긴다"며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티고 있지만 경유값이 2300원까지 올라가면 아예 운행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형 화물차를 이용하는 택배 노동자 등 운송업계 전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는 "택배차도 대부분 경유로 운행되는데 유가가 오르면서 한달 기름값이 10-20만원 정도 늘 것 같다"며 "회사에서 보전해주지 않으니 기사들 손해만 커지게 됐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정부가 최근 '석유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도입을 지시했지만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업계 내부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동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대기업 화주와 운송자본의 무책임, 정부사의 담합 카르텔은 화물노동자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유가 변동이 운임에 반영되는 안전운임제를 전자차·전



중동발 유가 폭등으로 화물운송업자들이 기름값 부담에 한숨을 쉬고 있다. 유가 부담에 운송을 포기한채 주차돼 있는 화물차량들.

품목으로 확대해 유가연동 운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화물연대본부는 11일 서울 강동구청 앞에서 과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유가 폭등으로 인

한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격 담합 신고센터(064-710-2514)를 운영해 주유소 간 담합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도청 누리집을 통해 도내 주유소의 최저·최고가 정보를 하루 2회 공개한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 '3만원 주택' 입주 문턱 낮아진다

도, 소득기준 130%... 맞벌이 200%로 완화

올해 제주 '3만원 주택' 사업 대상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월 임대료 가운데 입주자 부담금을 3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차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전년도 100% 이하(맞벌이 부부 130% 이하)에서 130% 이하(맞벌이 부부 200% 이하)로 확대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311가구에 2억

1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50가구를 대상으로 9억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혼인 또는 자녀 출산 7년 이내 가구로,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부부 200%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확인하며 자녀 가구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비 지원과 유사한 급여(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등)를 받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우도 해양도립공원' 개발사업 본격화

제주시 사업비 6억 투입 도로 정비·월파 피해 예방



우도 전경. 제주시 제공

제주시가 우도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제고와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우도 해양도립공원 지역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우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로 정비, 월파 피해 예방, 섬터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비 6억1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달 중 착공해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오봉리 도로 정비공사(2억원) ▷조일리 도로 정비공사(1억원) ▷서광리 도로 정비공사(7000만원) ▷천진리 월파 방지공사(1억원) ▷우도면 일원 정지센터

정비공사(1억원) ▷폐기물 처리(4000만원)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주민 안전과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6억여원을 투입해 조영시설 설치, 도로 정비, 방호벽 설치 등 9개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우도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등 수익을 활용해 주민 생활과 소득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로 매년 약 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감사원 "제주공항 로컬라이저 부적절하게 설치"... 4면 / 4.3유족 의료비 '지급 지연' 반복... 5면

한리일보 창간 37주년을 축하합니다

Design Solution

디자인솔루션  
아이엔지기획

- ☑ 광고기획 / 행사기획
- ☑ 현수막 · 실사출력 · 배너 · LED채널간판
- ☑ 옥외광고물 · 간판 · 각종사인물제작시공
- ☑ 인테리어 · 리모델링
- ☑ 전시대 · 행사부스 · 접기 제작 C1 · BI · 패키지

제주시 오도길1 / T.064)724-7177 F.064)724-7178